

 <b>산업통상자원부</b>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b>보도자료</b> 희망의 새시어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기간산업 기능안전, 국내 시험평가 역량으로 해결한다.**  
 -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 컨소시엄」 출범 -

- 그동안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동차, 철도 등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기능안전성 평가가 앞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협업체계(이하 컨소시엄)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국제표준(IEC 61508) 기반으로 전자제어 장치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H/W와 S/W 검증 평가로, 외국계 기관만 서비스 제공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6월 29일(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이원복),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원장 김기환),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원장 허경) 등 5개 대·중·소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 컨소시엄」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 \* 출범식(오전) 이후 산업계 관심유도 및 확대를 위해 기능안전 세미나 개최 예정[불임 1]
- 이번 출범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16대 유망시험인증 서비스 발굴·수립 및 산업화 지원, 대·중·소 시험인증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소시엄 구축 등 지원을 얻은 첫 번째 성과다.
- ‘기능안전 컨소시엄’에서는 각 산업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산업용 안전제어시스템, 철도, 자동차 등 국가기간 산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능안전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공동 활용마크 개발 △기능안전

전문가 양성 △장비공동활용 등을 수행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 서비스, '16년부터는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의료기기, 로봇, 선박 등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분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 이로써, 그동안 글로벌 인증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기능안전분야 시험평가를 국내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시험평가 비용절감, 기술유출방지, 국내기업 수출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 국내기업은 글로벌 기관 시험평가 비용(ex)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 약 7억원) 대비 50%이상 절감 예상(KTL 분석)
- 이동욱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이번 컨소시엄 출범은 국정기조인 국민 생활안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혁신 3.0의 핵심요소인 안전 관련 시험평가체계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협업체계의 기대감을 보였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산업 시너지 창출 및 자율적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이와 유사한 대·중·소 상생 컨소시엄이 활성화 되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한식 연구사(☎ 043-870-5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기능안전 컨소시엄 협약식 계획

### □ 개요

- 일시/장소 : '15.6.29(월) 11:00~17:00 / 더팔래스 호텔(반포동)
- 참석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주)프론티스-(주)슈어소프트 등 5개 협약기관 및 관련기업

###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20 (20')	티타임	협약기관장(5명)
11:20~12:00 (40')	업무협약 행사 - 개회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경과보고(KRRI 온정근 선임) - 협약서 설명(KATECH 유승렬 본부장) - 협약서 서명교환 - 기념촬영 - 폐회	그랜드 B홀
12:00~13:00 (60')	오찬	그랜드 B홀
13:00~14:00 (60')	휴식	
14:00~17:00 (180')	기능안전 세미나 - KTL (기능안전협의회 사업 추진 방향) - KRRI (철도분야 기능안전 동향) - KATECH (자동차분야 기능안전 동향) - (주)프론티스 (H/W 신뢰성 동향) - (주)슈어소프트 (S/W Testing 동향)	그랜드 A홀

## 2015년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국가기술표준원)

구분	서비스명	비고
1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시험	국가중점과학기술
2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시험인증	
3	스마트 에코 빌딩 시험인증	국가중점과학기술
4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시험인증	13대 산업엔진
5	용량별 무선충전 시험인증	
6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부품 시험인증	
7	원격 융합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8	극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	13대 산업엔진
9	나노구조를 가진 탄소복합물질 평가	13대 산업엔진
10	M2M 기반 사물통신 상호운용성 시험	
11	감성 고효율 반도체 조명의 시험평가	
12	바이오융합 소재 평가	
13	건강한 국가실현을 위한 중독평가	
14	3D 프린팅 시험평가	
15	실도로 배기규제 및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시험	
16	철도 부품의 신뢰성 평가	

\*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컨소시엄」: 2번과 16번 서비스가 연계됨.

##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 컨소시엄

### □ 컨소시엄 체계

- (구성) 산업별(전기전자, 철도, 자동차) 전문기관(3개기관)이 1차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기관을 시험기관(H/W, S/W)으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참여



- (운영) 3단계(인정-평가인증-시험)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

구성	주요 역할	구성기관(안)
기능안전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L평가인증기관 인정 및 승인</li> <li>평가자/인증자 인정(자격증)</li> <li>교육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정기구 역할</li> </ul>
평가인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분야별 SIL평가 인증</li> <li>SIL인증 컨설팅 수행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전자 : KTL</li> <li>철도 : KRRI</li> <li>자동차 : KATECH, KTL</li> </ul>
시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SIL 시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W : (주)프론티스</li> <li>S/W : (주)슈어소프트</li> </ul>

### □ 추진일정

내용	2015년		2016년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기능안전협의회 구성 및 준비	■							
기능안전협의회 설립 및 공통마크 개발		■						
기능안전 기준 및 평가모듈 개발			■	■	■	■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				■	■	■	■	■
기능안전 시범인증					■	■	■	■
기능안전 본 인증 시행 (KAS인증 준비)							■	■
타 산업분야 확산				■	■	■	■	■

- (추진 방향) 대·중소 시험인증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모델 개발로 시너지 창출 및 시장 구조개선

- (1단계) 상호 보완 효과가 큰 국내기관간(대형 기관 1개 + 중소 기관 10개 내외)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모델 개발 확산 유도('14)

\*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모델은 공동 마케팅·구매·R&D·장비활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길드형 협력 체계

- (2단계) 인적교류·공동출자 등 강한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확대 추진하고, 통합브랜드를 출시 및 통합인증서 발급('19)

\* 공동출자를 통한 해외기관 M&A, 해외진출, Alliance 구축 등을 통해 유지·발전

< 단계별 컨소시엄 구성 및 통합브랜드 구축(案) >

구분	형태	구성도	효과
1단계 ('14)	컨소시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을 통한 종합시험인증체계 구축</li> <li>자율적 시장 구조 조정</li> </ul>
2단계 ('17~'19)	통합브랜드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의 경제 실현</li> <li>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제고</li> </ul>

- (운영 방안) 단계적으로 대·중소 컨소시엄 구축 후 통합브랜드를 도입

- (컨소시엄) 시너지 극대화, 시장구조 개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컨소시엄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최소 기본요건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질서 저해 예방 및 분쟁 자율 조정시스템을 운영토록 유도

- (통합브랜드) 국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협력 조직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유도

\*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브랜드 개발과 시장 반응·문제점 보안을 위해 시범 운영('17)